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주 현 후 1 주 】

인도 1부 : 이범석 목사
2부 : 김재흥 목사

-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오소서 평화의 임금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담임목사
 ▲ 경배의 찬송 8. 거룩 거룩 거룩 다 함께
 ▲ 공동기도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품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냉랭한 세상을 살며 덩달아 차가워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의 따스한 사랑으로 우리의 살얼음 낀 마음을 녹여 주시고, 우리가 한 사람에게라든가 따뜻한 온기를 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곳곳에 폭력이 일상화되어 있는 이 사회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자신에게 주어진 지위와 권한을 폭력의 도구로 사용하는 이를 벌해 주십시오. 그 폭력으로 인해 큰 아픔을 겪은 이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그의 피눈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 참회의 침묵기도 다 함께
 ▲ 위로의 말씀 고후 5:16,17 인도자
 ▲ 교 독 문 53. 시편 121 다 함께
 ▲ 영 광 송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 함께
 2부대표기도 김정민 장로
 2부응답송 찬양대
 2부찬양 397. 주 사랑 안에 살면 다 함께
 ▲ 성경봉독 마 9:14-17
 I. 인도자
 II. 김윤정 권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함께
 찬양 I. 나의 찬미 마중물 찬양대
 II. 축복 청파 찬양대

말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다 함께
2부찬양	2남선교회
▲ 봉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다 함께
▲ 봉헌기도	담임목사
공동체 소식	담임목사
▲ 평화의 인사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다 함께
인도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목표를 주셨습니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롭게 나아가십시오. 옛 생활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마음을 굳게 먹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다함께:	아멘. 주님, 관성과 옛 생활에 젖은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에 대한 비전을 보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익숙함이라는 기준보다는 진리와 정의라는 기준을 따르며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세상을 담아낼 새로운 그릇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찬양 635. 주의 기도	다 함께
▲ 축복	김기석 목사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청파성서학당 / 강의 : 김기석 목사	낮 집회 / 설교 : 김기석 목사

■ 믿음으로 읽는 글 ■

하늘에 이르는 길

땅만 보며 걷는 사람은 많은 것을 놓치고 마는 셈이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라.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하늘의 아름다운 구름을 카메라에 담아 온 사진작가 헨리 랜스퍼드의 충고다. 그의 충고에 귀기울여야 하는 것은 시선의 방향이 곧 우리 삶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 혹은 관심하는 것 이상의 존재일 수 없다.

무엇을 보며 사는가, 하는 물음은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는가, 하는 문제와 맞닿아 있다. 땅을 보며 사는 사람의 삶은 흙 땅에 떨어진 동전 따위를 줍는 행운과 조우할지는 몰라도, 하늘을 보며, 그 찬란한 햇빛과 초롱초롱한 별들, 여러 모양의 아름다운 구름들을 벗하며 사는 사람의 삶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땅이 하늘과 다른 것처럼 하늘은 땅과 다르다.

땅을 보기 위해서는 고개를 쳐들 수 없고, 고개를 떨어뜨린 채로는 하늘을 볼 수 없다. 땅은 아래에 있고 하늘은 위에 있기 때문이다.

「갈매기의 꿈」의 작가 리처드 바크의 통찰을 되짚어 볼 때 ‘땅을 보며 사는 삶’은 해변가에 널린 생선 찌꺼기에 연연하는 보통 갈매기족의 삶과 상응하고, ‘하늘을 보며 사는 삶’은 갈매기족의 생활 방식 및 관습의 벽을 부수고, 창공으로 치솟아 올라 높이 나는 데 주력하는 조나단 리빙스턴의 삶과 상응한다. 조나단 리빙스턴의 삶의 의미는 ‘나는 데’ 있고, 다른 갈매기족의 삶의 의미는 ‘먹는 데’ 있다. 조나단 리빙스턴의 시선은 하늘을 향하고, 다른 갈매기들의 시선은 해변에 머문다.

‘먹는 것’이 삶의 전부인 세계, ‘먹는 것’으로 대표되는 통속적 소유욕만이 유일한 가치로 전락해 버린 세계, 그리하여 ‘나는 것’으로 상징되는 정신의 아름다움과 영혼의 향기로움이 폐기된 세계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창공을 향한 비상을 꿈꾸는 숭고한 조나단들을 만나고 싶다.

리처드 바크의 원작을 영화화한 <갈매기의 꿈>의 음악은 미국의 싱어

송라이터인 닐 다이아몬드가 담당했는데, 삽입곡 중에 ‘하늘에 이르는 길’이 있다. 제목이 의미심장하다. 하늘에 이르는 길은 존재에 이르는 길이다. 참된 삶이 거기 있다. 이를 대변하듯 닐 다이아몬드가 만든 다른 주제 음악 중 하나는 ‘존재’다.

먹는 것, 소유하는 것, 지배하는 것에 ‘지배당한’ 땅의 세계는, 존재하는 것, 공유하는 것, 사랑하는 것에 관심을 둔 하늘의 세계와는 같을 수 없다. 전자는 통속의 세계이고, 후자는 초월의 세계다.

지나치게 일상적 관심에만 매달릴 때, 통속적인 것에 궁극적 의미를 부여하려고 시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신으로 삼는 잘못에 빠져들게 된다. 왜냐하면 일상적 관심, 곧 땅은 유한하고, 유한한 것은 궁극적일 수 없고, 따라서 궁극적 관심의 대상이어서도 안 되기 때문이다. 유한한 대상을 무한한 것인 양 궁극적 관심의 대상으로 숭배하는 행위, 그것이 곧 우상 숭배다. 우리는 유한하지만 무한을 동경하도록, 땅에 속하지만 땅을 초월하도록 요청받은 존재다.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관심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방향과 삶의 질을 총체적으로 결정한다. 우리의 삶은 결코 우리가 보는 것, 관심하는 것 이상일 수 없다. 일상을 뛰어넘고, 소유를 초월하고, 땅을 박차고 치솟아 올라 비행하는 그 자리에, 존재가 있고 하늘이 있다. 우리의 궁극적 관심의 대상인 무한이 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늘 물어야 한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며 살고 있는가? 무엇에 궁극적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땅인가, 하늘인가?

아래 있는 것인가, 위에 있는 것인가?

먹는 것인가, 나는 것인가?

소유인가, 존재인가?

일상인가, 초월인가?

새해 새 아침은

- 신동엽

새해/ 새 아침은
산 너머에서도
달력에서도 오지 않았다
금가루 흩뿌리는
새 아침은
우리들의 대화
우리의 눈빛 속에서 열렸다

보라/ 발밑에 널려진 골짜기
저 높은 억만 개의 산봉우리마다
빛나는/ 눈부신 태양
새해엔/ 한반도 허리에서
철조망 지뢰들도 씻겨갔으면

새해엔/ 아내랑 꼬마아이들 손 이끌고
나도 그 깊은 우주의 바다에 빠져
달나라나 한 바퀴 돌아와 봤으면

허나/ 새해 새 아침은
산에서도 바다에서도
오지 않는다

금가루 흩뿌리는/ 새 아침은 우리들의 안창(眼窓)
영원으로 가는 수도자(修道者)의
눈빛 속에서 구슬 짓는다

■ 헌금 영수기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고형은 김광일 이부용 김수진b김연신 김정린 김희선 노신후 박속영 박시내
 박창운 허정윤 서원금 서해나 설규범 송인선 심영란 안성호 김희숙 윤영미
 윤영주 이국노 김민화 이재문 이지원 임진엽 임찬양 정두리 정보라 정연희
 정현숙 조영순 최옥자 하현일 한상경 현 진 흥운선

감사헌금

강이준 강희석 국지연 권두리 김금순 김반야 김성우 박유경 김인석 이선화
 김일재 김재환 김진선 김주경 최지혜 김충실 조아라 김태은 김태정 노신후
 노진래 최형경 박순섭 박영옥 박승은 박재영 이현정 박창운 허정윤 박해남
 소병화 손숙경 안도윤 안이현 안현호 오민용 윤선호 임선아 이건호 김보민
 이광재 이삼남 정용구 이상도 이유일 김미희 이은빈 이은서 이은진 이재문
 이정우 장윤지 임채진 이영희 장춘란 정구봉 정근우 정연희 정영례 정윤환
 정재우 조영순 조홍작 정세진 지윤미 채일석 청년 최수연 최옥자 한종윤
 박지영 한채빈 허호범 박성실 홍소형 홍순복 무명9

녹색꿈헌금

김영읍 김용길 최영혜 김일재 김향자 문복순 정효 최희영 무명

■ 집 회 안 내 ■

예배	시간	장소	예배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대예배실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성서학당	13:30	대예배실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교회소식 ■

1. **의무헌금 봉헌** : 오늘 의무헌금(약정)을 봉헌합니다. 헌금은 예배 전에 헌금함에 넣습니다.
2. **청파성서학당** : 오늘 오후에 청파성서학당이 열립니다.
3. **교육부 회의** : 교육부 회의가 12:20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4. **구역회** : 구역회가 다음 주일(20일) 오후 1:30 친교실에서 열립니다.
5. **계삭회** : 중구용산지방 여선교회 계삭회가 15일(화) 오전 10시 광희문교회에서 열립니다.
6. **모집** : 1부 예배 찬양대원, 교회학교 교사, 주차장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7. **교회생활안내** :
교회에 오실 때 가급적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 주세요.
차를 가지고 오실 때는 청파마을공영 주차장에 주차하시면 됩니다.(주차권) 예배에 늦지 않게 오시고, 앉을 때는 앞자리부터 채워 앉아 주세요.
회중은 예배의 마지막 순서인 송영 이후에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8. 기부금영수증 홈택스에서 다운받는 법(2019/1/11기준) :

1.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해서 공인인증서(또는ID / PW)로 로그인 (홈택스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원이 아닌 경우 회원 가입은 상단의 회원가입버튼 클릭한 후 주민등록번호로 개인회원으로 가입등록하시면 됩니다.)
2. 로그인 후 초기화면에서 좌측 중간에 있는 '연말정산' 이미지를 클릭, 좌측 중간에 있는 '간소화자료조회' 메뉴의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 귀속연도가 2018년인 것을 확인하고 우측 아래 기부금 돋보기 버튼을 클릭.
3. 하단에 조회된 기부금내역을 확인하고 출력할 항목을 체크한 후 'PDF다운로드' 클릭해서 파일로 다운로드 받거나 '인쇄하기' 클릭해서 출력합니다.

다음 주 설교 본문 사 62:1-7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인도
1부	김기석	공동기도	인도자	이범석
2부	김기석	박홍재	류건형	김재흥

1월	1부 영접위원	곽권희	헌금위원		박숙미
	2부 영접위원	장원호	조문규	윤성종	진정숙
	2부 헌금위원	박홍재	박규석	주은경	김윤정

오늘 식당 봉사	이현숙	이은미	손미자	이수경	김정미	김태한	임당재	신정훈
다음주식당봉사	안홍숙	이수정	노성희	정현주	곽권희	이수자	안종일	홍순구
오늘설거지봉사	3남선교회			다음주설거지봉사			4남선교회	
커피 판매 봉사	4여선교회							

- 교인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이나 목회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